

최근 베트남 진출

섬유 의류 기업

현황과 대응



목 차

I. 베트남내 섬유 의류 진출기업 개요 및 최근동향	3
1. 베트남의 섬유 의류산업	3
2. 섬유 의류 진출기업 개요	5
3. 코로나19 발생이후 베트남내 섬유 의류산업 동향(2020년)	12
II. 최근 봉쇄장기화로 인한 애로사항 및 대응	14
1. 베트남내 코로나 확산 경과	14
2. ('21년 7월이후) 베트남 정부의 봉쇄조치	18
3. ('21년 7월이후) 진출 섬유 의류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19
4. 대응조치(정부, 업계, 공공기관)	23
5. 향후전망	26
III. 요약 및 시사점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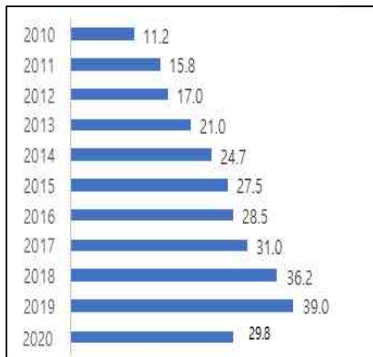
I. 베트남내 섬유 의류 진출 기업 개요 및 최근 동향

1. 베트남의 섬유 의류 산업

□ 베트남의 주력 수출 산업인 섬유 의류 산업

- 베트남은 세계 최대의 섬유 의류 생산 및 수출국 중 하나이며, 섬유 의류 산업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수출 산업임
- '10년 동 산업의 수출 규모는 112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년에는 390억 달러로 성장(GDP의 15%)하였으며 '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출액 급감

<베트남의 섬유 의류 산업 연도별 수출입 규모(단위: US10억 달러)>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수출	27.5	28.5	31.0	36.2	39.0	29.8
수입	16.5	17	19	21.9	22.4	21.5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13.2	13.6	15.6	18.4	19.3	14.3

자료 : 베트남관세총국, VITAS(베트남 섬유 의류 협회) 등 코트라 종합

- '20년 베트남의 섬유 의류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24% 감소한 298억 달러
- * 코로나 발생 전 베트남 업계에서는 '20년 수출액을 420억~430억 달러로 예상함
- '21년 섬유 의류 수출 규모는 당초 390억~395억 달러로 전망하였으나 7월 이후 진행된 봉쇄의 여파로 잘해야 320억~330억 달러에 그칠 전망

□ FDI 기업(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율

- 전체 산업 내 수출의 70% 이상을 FDI 기업이 담당('19년 기준)
- 베트남 토종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 기업으로 2018년 기준 평균 종업원 수는 74명에 불과함. 반면 FDI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752명으로 조사됨
- MCSS(Mekong-China Strategic Studies)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 내 중견 기업 이상의 규모를 갖춘 기업 중 외국계 기업의 비중은 2011년 18%에서 2018년 26%로 8%p 증가함

- 베트남섬유의류협회(VITAS)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섬유·의류 분야의 30년간 외국인직접투자는 195억 달러에 달함

* 한국, 대만, 홍콩, 중국, 버진아일랜드 순

□ 주요 수출품목은 HS61류·HS62류이며 주요수출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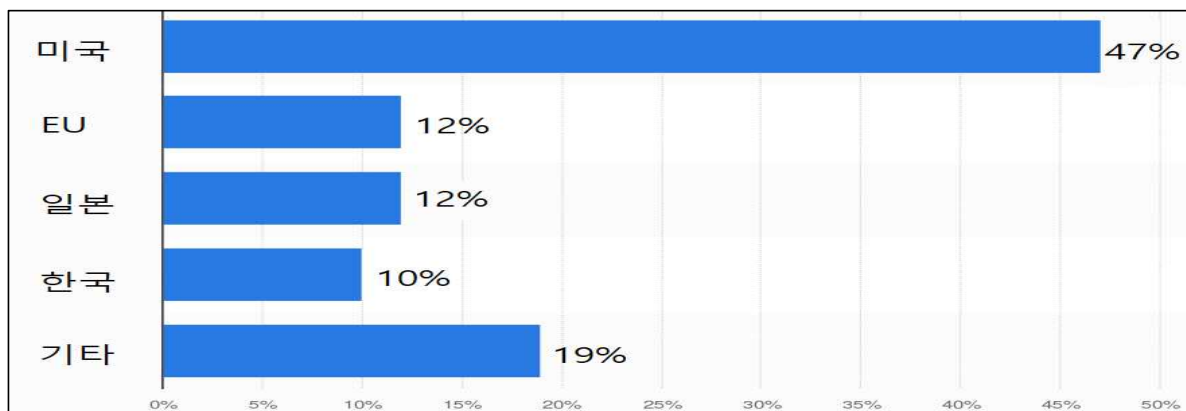
- HS61류(편물제 의류)와 HS62류(비편물제 의류)는 베트남의 대표 수출 품목이며 대표적인 수출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임
- 지난 3개년(2018년~2020년)간 미국은 422억 달러규모의 베트남 제품 (61류 및 62류)을 수입함

<베트남산 섬유제품(HS61류,HS62류)의 국별 수출 동향(단위:US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2018		2019		2020		소계
		61	62	61	62	61	62	
1	미국	8,011	5,623	8,453	6,308	7,883	5,937	42,217
2	일본	1,733	1,794	1,822	1,860	1,609	1,659	10,480
3	한국	955	2,219	1,055	2,169	1,018	1,726	9,144
4	중국	589	596	598	616	524	516	3,442
5	캐나다	335	323	404	399	414	372	2,250
6	독일	247	540	293	507	279	470	2,339
7	네덜란드	229	384	254	434	251	361	1,915
8	프랑스	240	369	257	340	222	344	1,775
9	영국	200	556	244	521	217	316	2,027
HS61류 수출규모		12,543		13,385		12,422		38,351
HS62류 수출규모			12,407		13,158		11,701	32,270
전 체		13,850	14,301	14,884	15,153	13,700	13,329	85,220

자료 :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map(2021.9.13.)

<2020년 1월~8월 베트남의 주요 수출대상국 및 비중>



자료 : Statista

2. 섬유 의류 진출 기업 개요

□ 한국은 베트남 섬유 의류 분야, 제1위 투자국

- 베트남 섬유 의류 협회(VITAS)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총 464개이며 베트남 섬유 의류 산업 총 FDI 투자액의 25%를 차지
 - 베트남 섬유 의류 분야로 유치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30년간 약 195억 달러에 달함
- 누락을 감안한 실제 베트남 진출 한국 섬유 의류 기업은 약 700여 개사로 추산
 - 베트남은 한솔비나, 세아상영 등 한국 섬유 의류 기업의 주력 생산 거점
 - 한국 진출 기업 지역별 분포도 : 남부(60%) > 북부(37%) > 중부(3%)

<베트남 섬유 의류 분야 외국인 직접 투자 상위 투자 국가(1989-2019)>

순위	국가명	등록 기업 수	총 등록 자본 (단위: US억 달러)	비율(%)
1	한국	464	48	25
2	대만	132	30	16
3	홍콩	147	24	12
4	중국	197	21	11
5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70	16	8

자료 : 베트남 섬유 의류 협회(VITAS)

- 한국에서 주로 원자재를 공급, 베트남에서 의류 등 완제품 생산
 - 베트남은 한국의 섬유류 제2위 교역국, 교역액 63억 달러(2020년 기준)
 - * 한국의 섬유류 수출 순위('20년) : ① 베트남(23.6억불), ② 중국(16.4억불), ③ 미국(14.3억불)
 - * 한국의 섬유류 수입 순위('20년) : ① 중국(65.5억불), ② 베트남(40.2억불), ③ 이탈리아(8.3억불)
 - 최근 3년간 섬유 의류는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베트남 수입 품목에서도 2위를 유지

<한국의 베트남 섬유 산업 분야 교역 동향(단위: US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기준)
수출(한→베) (증감률)	3,100 (4.1%)	2,884 (△7.0%)	2,354 (△18.3%)	1,698 (15.5%)
수입(베→한) (증감률)	4,448 (23.7%)	4,500 (1.2%)	4,024 (△10.6%)	2,800 (9.2%)

자료 : 무역협회, * 2021년은 전년 동기(1~8월) 대비

○ 베트남은 한국 섬유 의류 기업의 제1위 투자대상국

- 베트남은 투자금액 기준 한국 섬유 의류 기업의 제1위 투자대상국이며 총 31억달러가 투자됨. 베트남에 이어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스위스 등이 주요 투자대상국

〈섬유 의류 기업 국별 해외투자 현황〉

순위	국가명	투자금액(US천달러)	비중(%)
1	베트남	3,100,237	29.0
2	중국	2,650,611	24.8
3	인도네시아	1,203,762	11.2
4	미국	612,612	5.7
5	스위스	320,382	3.0
6	우즈베키스탄	244,033	2.3
7	독일	199,167	1.9
8	도미니카공화국	197,383	1.8
9	방글라데시	194,757	1.8
10	미얀마	187,098	1.7
	소 계	10,707,148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1968년~2020년의 누계치), 섬유패션산업통계(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21.5)에서 재인용

〈태광실업의 태광비나(좌)와 베트남목바이(우)〉



자료 : 태광실업 웹사이트

□ 주요 진출기업

○ 한세실업

- 법인명 : Hansae Vietnam, Hansae TN, Hansae TG, C&T Vina
- 설립년도 : 2001년, 소재지 : 호치민 및 중부지역, 임직원수 : 16,000명 이상
- 3개의 생산법인, 원단 가공·염색 관련 법인, 후가공 공정 관련 법인으로 구성

법인명	설립 년도	전체 부지	생산 제품	생산능력	임직원 규모(명)	진출 지역
Hansae Vietnam	2001	283,800m ²	편직물		6,500	호치민시
Hansae TN	2005	132,000m ²	편직물		4,200	떠이닌성
Hansae TG	2010	363,000m ²	편직물	연 450만 피스	5,900	띠엔장성
C&T Vina	2006	267,300m ²	편직물, 염색	염색: 일120,000kg	650	빈프억성
C&T G-Tech	2018	5,760m ²	가먼트다잉, 워싱		120	빈프억성

○ 세아상역

- 법인명 : Winners Vina, S&H Vina, Eins Vina, KJ Vina
- 소재지 : 호치민 및 하노이 인근, 임직원수 : 19,000명 이상
- 설립 : 2004년, 333개 봉제라인 보유
- 전체 부지 : 248,012m²

○ 코오롱산업(Kolon Industries Binh Duong)

- 주요제품 :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설립년도 : 2017년, 진출지역 : 빈즈엉성
- 자산총액 : 1,396억원('20년말), 생산규모 : 연산 16,800톤

○ 효성 베트남

- 설립년도 : 2007년(동나이법인 2015년), 면적 : 640,475m²(동나이법인 574,565m²별도)
- 소재지 : 베트남 동나이성, 임직원수 : 약 7,000명
- 자본금 : 10.68억달러(2016년 누계), 누적투자 : 약 15억달러
- 주요제품 : 타이어코드, 스판덱스, 스틸코드
- 매출규모 : 약 2조3,000억원('19년, 베트남 전체)

<호성 베트남>



자료 : 호성 웹사이트(좌)

○ 일신방직

- 법인명 : Ilshin Viet Nam
- 소재지 : 베트남 떠이닌성 프억동 산업단지
- 설립년도 : 2014년 1월, 임직원수 : 400여명
- 생산 제품 : 면사, 혼방사, 슬러브사, 멜란지사
- 생산설비 : 방적 70,000추, 생산능력 : 45,000kg/일
- 전체부지 : 대지(227,700㎡) / 건물(44,000㎡)

○ 신성통상(Shinsung Tongsang Vina)

- 소재지 : 빈즈엉성, 전체부지 : 30,152㎡
- 설립시기 : 2016년 12월, 임직원수: 1,500명(2020년 기준)
- 주요 제품 : 여성의류(Carter's, Abercrombie & Fitch, Hollister, American Eagle 등)
- 생산능력 : 42라인 월130만피스(2020년 기준)

○ 노브랜드

① NBVO

- 설립일 : 2013년 9월 1일, 소재지 : 호치민시, 임직원수 : 3,314명
- 생산능력 : 48라인 월160만피스, 봉제·편직(여성·남성의류) 수행

② Nobland Vietnam

- 설립일 : 2002년 2월 1일, 소재지 : 호치민시, 면적 : 80,000㎡
- 임직원수 : 1,720명, 생산능력 : 30라인 월120만피스, 봉제·편직(의류) 수행

③ NBIG VN

- 설립일 : 2006년 3월 1일, 소재지 : 호치민시, 임직원수 : 217명, 샘플제작

○ **한솔섬유**

- 베트남내 총 283라인 보유, 생산능력 : 월1,705만피스
- 베트남내 매출 : 7억5,300만불('21년 예상)
- * 인도네시아(2억3,100만불), 캄보디아(7,900만불), 과테말라(7,400만불) 등

법인명	설립 년도	생산 제품	생산능력	임직원 규모(명)	진출지역
Hansoll Vina	2001	편직물	73라인 월4,560,000피스	4,300	빈즈엉성
Hansoll Vietnam	2009	편직물	38라인 월2,190,000피스	2,200	동나이성
Kotop Vina	2012	편직물	20라인 월1,150,000피스	830	동나이성
Unisoll Vina	2013	편직물	136라인 월8,330,000피스	7,100	벤째성
Hantex Vina	2015	편직물	22라인 월1,150,000피스	940	빈즈엉성
Global Dyeing	2004	염색 및 마무리	염색 : 일120,000kg 프린팅 : 일20,000kg 의류처리 : 일80,000피스	1470	동나이성
Global Hantex	2013	편직, 염색 및 마무리	원사염색 : 일20,000kg 편직 : 일20,000kg 염색 : 월1,200,000kg	28	떠이닌성

○ **태광실업**

-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파트너
- 생산량('19) : 동나이공장(3,947만 켈레), 떠이닌공장(1,516만 켈레)
- 매출액 : 13.23억 달러(3개 법인 합산)

① **베트남 태광비나실업(TMTC비나)**

- 설립일 : 1994년 7월 13일, 소재지 : 베트남 동나이성 비엔화시
- 업종 : 신발 개발 및 제조, 현지투자 : 1억9,970만 달러
- 규모 : 대지(351,057㎡)/건물(163,458㎡), 임직원 : 36,000명

② **베트남목바이**

- 설립일 : 2009년 9월 18일, 소재지 : 베트남 떠이닌성 목바이 경제특구
- 업종 : 신발 제조, 현지투자 : 1억 달러
- 규모 : 대지(246,960㎡)/건물(104,185㎡), 임직원 : 15,100명

③ **태광컨터**

- 설립일 : 2016년 9월 29일, 소재지 : 베트남 컨터직할시 까이장구
- 규모 : 대지(587,700㎡)/건물(59,981㎡), 임직원 : 6,800명

○ 팬코

① PANKO E&D

- 소재지 : 꽝남성 땀끼시, 임직원수 : 6,000여명, 전체 부지 : 183,200㎡
- 주요 생산제품 : 니트웨어, 스포츠웨어, 작업복, 가족의류 등

② PANKO VINA - 팬코비나 빈즈엉공장

- 설립년도 : 2002년, 소재지 : 빈즈엉성
- 생산능력 : 170라인 월425만피스(편직: 일80,000kg, 포염: 일70,000kg, 사염: 일12,000kg)
- 편직, 봉제, 염색 수행

③ PANKO TAMTHANG - 팬코땀탕 꽝남공장

- 설립일 : 2015년 7월, 소재지 : 꽝남성 땀끼시 땀탕산업단지
- 면적 : 300,000㎡, 임직원수 : 15,000명
- 생산능력 : 240라인 월600만피스(편직: 일100,000kg, 포염: 일100,000kg)
- 편직, 봉제 수행

<팬코(Panko Vina)>



자료 : 팬코 웹사이트(좌)

○ 화승엔터프라이즈

- 법인명 : Hwa Seung Vina, Unipax
- 소재지 : 동나이성 년짜지구(2002년~), 룡탄지구(2007년~), 끼엔장성(2017년~)
- 설립일 : 2002년 4월 2일, 임직원수: 2만7,000여명(화승비나), 1,750명(유니팍스)
- 주요 사업 : 신발 ODM(아디다스 및 리복 스포츠화), 모자 OEM(나이키, 언더아머)
- 생산능력 : 월400만피스(2016년 기준), 규모 : 대지(420,000㎡)/건물(220,000㎡)
- 매출규모 : 약 8,421억원('20년, 베트남 전체)

○ **현진스포텍(하이비나)**

① HAIVINA NAM SACH-HAI DUONG

- 설립년도 : 2003년, 소재지 : 하이즈엉성 남삭산업단지
- 면적 : 27,000m², 임직원수 : 1,300명, 생산능력 : 월340만피스(장갑)

② HAIVINA GIA LOC-HAI DUONG

- 설립년도 : 2006년, 소재지 : 하이즈엉성 자록지구, 면적 : 55,000m²
- 임직원수 : 3,400명, 생산능력 : 월580만피스(장갑), 월120만피스(의류)

③ HAIVINA KIM LIEN-NGHE AN

- 설립년도 : 2003년, 소재지 : 응에안성 남단현, 면적 : 40,000m²
- 임직원수 : 2,600명, 생산능력 : 월520만피스(장갑), 월180만피스(의류)

④ HAIVINA HONG LINH-HA TINH

- 설립년도 : 2003년, 소재지 : 하띵성 남흥산업단지, 면적 : 94,000m²
- 임직원수 : 1,000명, 생산능력 : 월360만피스(장갑)

〈하이비나 하이즈엉(좌)과 하이비나 응에안(우)〉



자료 : Dautu online(baodautu.vn)

○ **영원무역**

① YOUNGONE NAM DINH

- 설립일 : 2004년 3월 12일, 소재지 : 남딘성, 면적 : 462,000m²
- 임직원수 : 8,000명, 생산 제품 : 의류, 가방, 신발
- 봉제(가먼트 일체), 직물(원단, 메리노울), 염색(가공), 패딩, 니트(환편), 프린팅 등

② YOUNGONE BAC GIANG(설립년도 : 2012년, 소재지 : 박장성 덩짬산업단지)

③ YOUNGONE HUNG YEN(설립년도 : 2012년, 소재지 : 흥옌성)

④ YOUNGONE SOC TRANG(투자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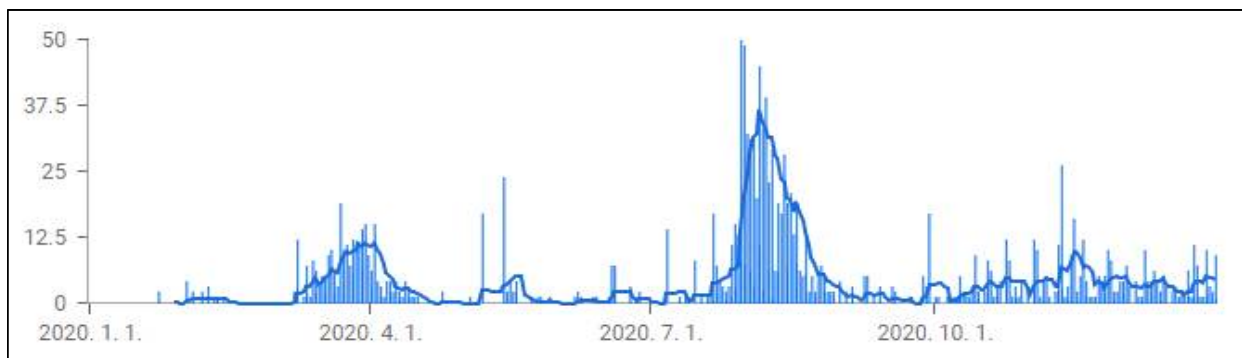
- 설립년도 : 2017년, 소재지 : 석짱성, 면적 : 150,000m², 생산 제품 : 가죽신발, 핸드백

3. 코로나19 발생 이후 베트남 내 섬유 의류 산업 동향(2020년)

□ 코로나 발생에 따른 원부자재 확보난, 오더 취소 등 피해 발생

- 2020년 2월경에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공급받는 중국과 물류가 원활하지 못해 원부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
-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확산에 따라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주문 취소, 연기가 다수 발생함
 - 2020년 베트남의 섬유 의류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24% 감소한 298억불에 그침
- 2020년 4월 이후, 일부 성에서 직장내 가림막 설치 등 정부의 방역조치 요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 이후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이러한 애로는 해소
- 진출기업들은 근무시간 단축, 인력감축, 개인보호장비 생산 등으로 대응
 - 일부 기업들은 마스크, 방호복 등 개인보호장비(PPE)로 생산을 전환

<2020년 베트남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추이(단위:명)>



자료 : 존스홉킨스 대학

□ EU-베트남 FTA 발효로 기회요인 발생

- EU수출시 관세철폐로 베트남 진출 기업들에게 판로확대 요인으로 작용
 - 한국산 직물(fabric)을 사용해서 베트남에서 제조한 의류(61,62류)의 경우 베트남 원산지 자격을 부여함
 - * 동 FTA발효('20.8)에 따라 7년에 걸쳐 베트남산 EU수입품 99.7%(금액기준)의 관세가 철폐됨
 - * 2021년 1분기 베트남의 對EU수출은 18% 증가하였으며 신발류는 19.2% 증가함

□ 인력난 발생

-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 증가로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인력난 발생
 - VITAS(베트남섬유의류협회)는 2019년 섬유·의류기업 전반적으로 20% 가량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힘
 - * 2019년 베트남으로 외국인투자가 389억달러 유입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

<연도별 對베트남 외국인 총투자액>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6월
투자 금액 (US억 달러)	268.9	371.0	354.7	389.5	285.3	152.7
증감율 (전년대비)	-	37.9%	4.4%	9.8%	△24.9%	△2.6%
투자 건수	9,832	9,000	10,711	16,227	9,804	3,119
증감율 (전년대비)	-	△8.4%	19.0%	51.4%	△35.0%	△48.6%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6.20. 기준, '21년 증감률은 '20년 동기대비 기준

- 연 300시간으로 정해진 초과근무 규정도 인력난에 영향
 - 베트남 노동법은 월 최대 40시간, 연 300시간의 초과근무만을 허용
 - * 기업들의 초과근무허용시간 확대 요구에도 개정노동법('21년 발효)에 반영되지 않음
- '19년, '20년 최저임금 각각 5.3%, 5.5% 인상으로 부담가중('21년은 동결)
 - 올해 1지역의 최저임금은 월194달러 수준
 - 기본급 외 식대, 교통비, 보너스, 사회보장비용 등 추가 소요
 - * 베트남 의료 및 사회보험비는 월 급여에 21.5% 수준

<2021년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지역	4,180,000동(184달러)	4,420,000동(194달러)	2020년과 동일
2지역	3,710,000동(163달러)	3,920,000동(172달러)	2020년과 동일
3지역	3,250,000동(143달러)	3,430,000동(151달러)	2020년과 동일
4지역	2,920,000동(128달러)	3,070,000동(135달러)	2020년과 동일

자료 : 베트남 국가임금회의, 적용환율(1USD=22,746VND, 2021.9.15.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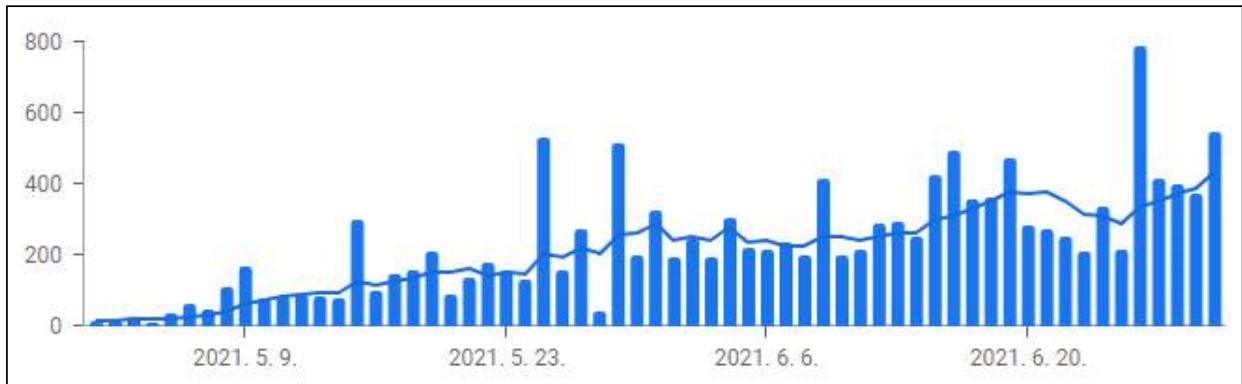
II. 최근 봉쇄장기화로 인한 애로사항 및 대응

1. 베트남내 코로나 확산 경과

□ '21년 4월말 이후, 코로나19 4차 유행 발생

- 4월말부터 5월초로 이어진 연휴기간 중에 이루어진 인력이동으로 하노이 인근 산업단지에서 다수의 신규확진자 발생
- 5월이후, 박장성, 박닌성 등 북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확산세가 진행되어 6월말에는 일 평균 400명을 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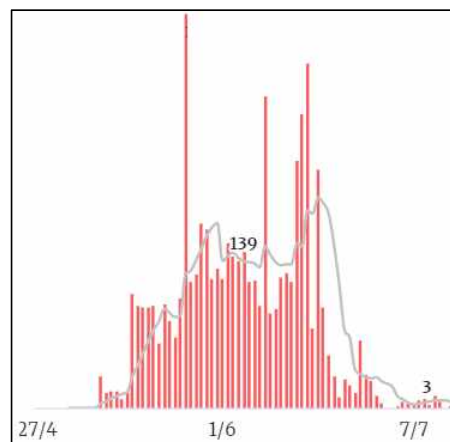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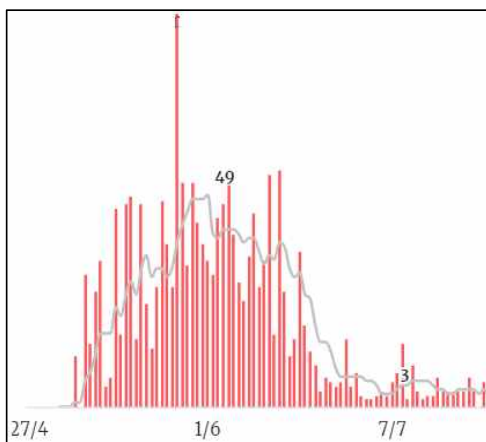
<2021년 5월~6월 베트남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발생추이(단위:명)>



자료 : 존스홉킨스 대학

- 5월~6월기간 박장성과 박닌성 등은 매일 수십~수백명 수준의 신규확진자가 발생 하였으며 7월이후 확산세가 수그러듦

<4월말 이후 박닌성(좌)과 박장성(우)의 코로나 신규확진자 추이(단위:명)>



자료 : vnexpress 코로나 통계시스템

□ (5월 고강도 방역정책 실시) 해당 공단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 시행

- 베트남 정부는 해외입국자의 의무격리기간을 연장하고 지역별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는 한편 백신펀드 조성을 개시
 - (해외입국자 의무격리기간 연장[5.5일]) 기존 14일→28일(시설 21일, 자가 7일)

〈'21년 5월~6월 성시별 주요 조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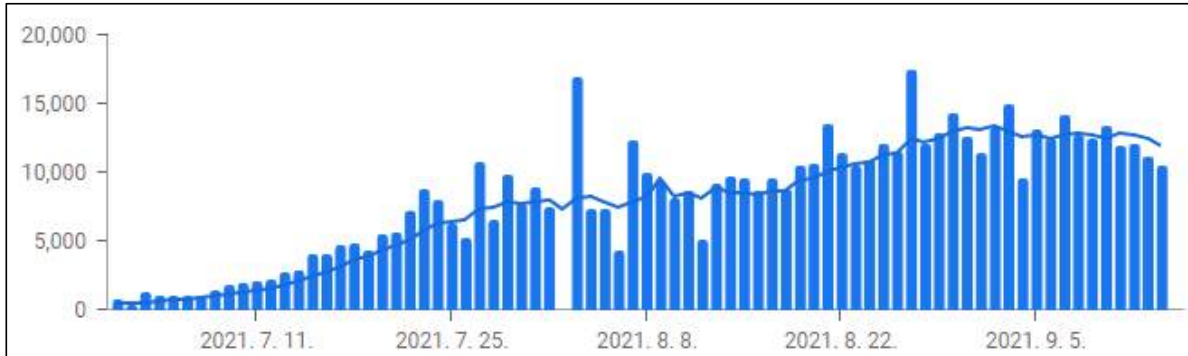
하노이	· 5.25일 지정부터 미용실 등 영업 정지 · 식당, 카페 등은 매장 내 취식 금지(배달가능) · 전 학교 온라인 수업 시행, 기업 대상으로는 재택근무 권고
박 닌	· 확진자 발생 지역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인 총리령 15호 및 16호 시행 · 성 내 모든 기업 대상 코로나 전수 검사 실시, 인근성으로부터의 인력 유입 차단 · <u>근로자와 관리자는 공장 내 숙식토록하고 이동을 제한</u> · 필수 노동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 시행
박 장	· 산업 공단 등 주요 발생 지역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총리령 16호) · <u>근로자 집중 감염 발생 4개 공단 전면 폐쇄</u>하고 기업별 코로나 전수 검사 시행 · 5.29일 이후 일부 기업에 제조 활동 재개 허용, 집중적인 코로나 검사 실시
빈 폭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박닌, 박장 인력 유입차단) · 기업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전수 검사 지시
타이응웬	· 5.26일 공단 내 확진자 발생 후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차단 · 타이응웬성 이외 거주자에 대한 출퇴근 제한 조치
호치민	· 5.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 6.28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시행

- 이 기간(5월~6월) 북부지역 해당성에서는 출퇴근불가 등으로 조업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6월말 이후 차츰 해소
 - (박장성) 번쭝공단(Van Trung IP) 등 4개 공단 완전 폐쇄하였으며, 해당 공단에 투자한 한국기업 약 164개사 조업 중단
 - * 공단 근로자 전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선별적으로 조업 정상화 됨
 - (박닌성) 박장성 내 협력사 생산 중단으로 인한 납품 차질 및 물류차질 발생
 - * 성간 통행 금지(다른성 거주자 출퇴근 불가), 외부 차량 진입 금지 등의 조치 단행, 다른 성과의 이동불가조치로 근로자 부족현상 및 원부자재 수급상의 애로 발생
 - * 빈폭성, 타이응웬성 등에서도 비슷한 애로 발생

□ (7월) 호치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신규확진자의 급격한 증가가 진행

- 7월이후, 일일 신규확진자수 기준으로 7월3일 1,000명을 돌파(1,189명) 하였으며 7월15일 4,000명선(4,049명), 23일 8,000명선(8,628명)을 넘은 이후 7월말부터는 일일 1만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발생

<2021년 7월 이후 베트남내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추이(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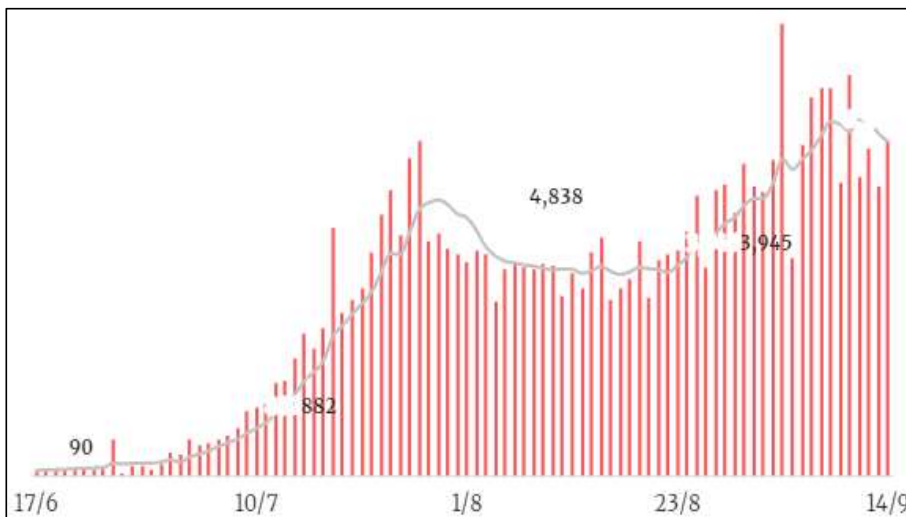
자료 : 존스홉킨스 대학

<9월14일~21일 기간중 베트남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단위:명)>

9. 14(화)	9. 15(수)	9. 16(목)	9. 17(금)	9. 18(토)	9. 19(일)	9. 20(월)	9. 21(화)
10,496	10,583	10,482	11,506	9,360	10,025	8,668	11,687

자료 : 베트남보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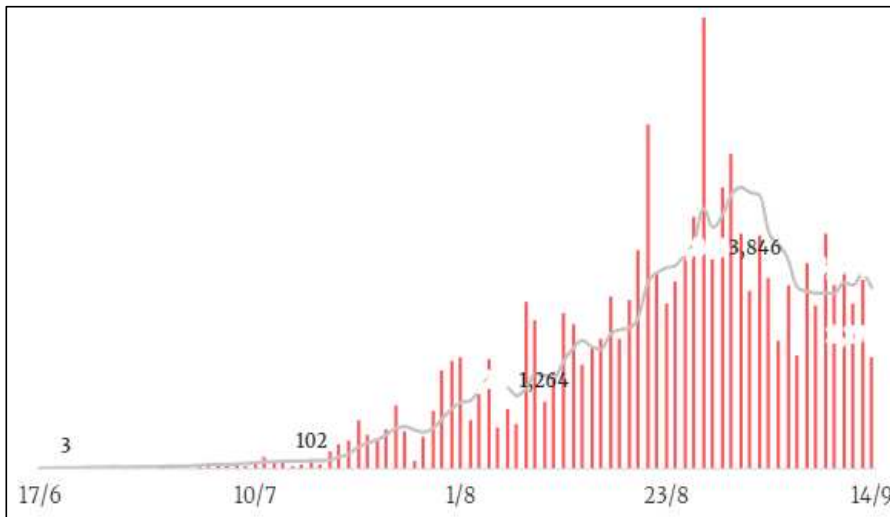
<최근 3개월간 호치민시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발생추이(단위:명, 9.21일 기준)>



일자	확진자수
9.10	7,539
9.11	5,629
9.12	6,158
9.13	5,446
9.14	6,312
9.15	5,301
9.16	5,735
9.17	5,972
9.18	4,237
9.19	5,496
9.20	5,171
9.21	6,521

자료 : vnexpress 코로나 통계시스템

<최근 3개월간 빈즈엉성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발생추이(단위:명, 9.2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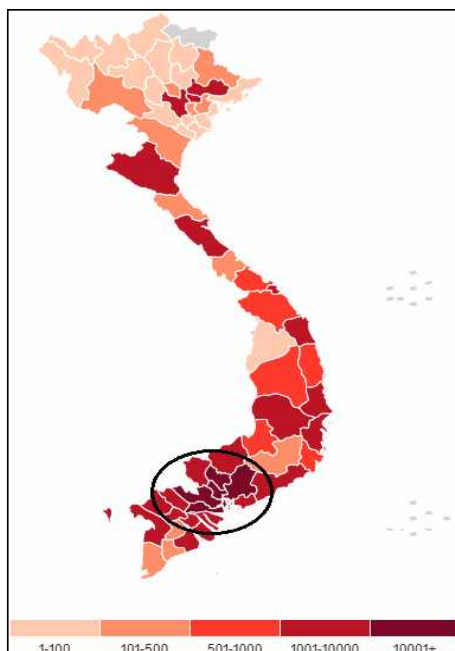


일자	확진자수
9.10	3,563
9.11	3,971
9.12	3,188
9.13	3,651
9.14	2,178
9.15	3,228
9.16	2,998
9.17	4,013
9.18	2,877
9.19	2,332
9.20	1,410
9.21	3,609

자료 : vnexpress 코로나 통계시스템

- 호치민시의 경우 7월을 기점으로 확진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9월 중순까지도 일 5,000~6,000명 수준의 신규확진자가 발생
 - 호치민 인근 빈즈엉성의 경우는 7월과 8월 급증세가 이어졌으며 9월 중순이후 일일 신규확진자 2,000~3,000명 수준
- 성시별 누적 1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모두 남쪽지역임

<성시별 코로나 확진자 발생분포(좌)와 주요성시 주요 누적확진자(우)>



지역	성시명	누적확진자수
남부	호치민시	348,220
남부	빈즈엉성	183,341
남부	동나이성	41,432
남부	롱안성	30,850
남부	띠엔장성	13,375
남부	동탑성	8,118
중부	다낭시	4,874
북부	하노이시	4,178
베트남전체		707,383

자료 : vnexpress 코로나 통계시스템, 누적확진자수는 2021년 9.21일 발표 기준

2. '21년 7월이후 베트남 정부의 봉쇄조치

□ (남부) 총리령 16호를 유지하며(7.6~9.30) 확산세에 따라 지방성 차원의 추가 대응체계 구축하는 등 강력한 봉쇄(락다운)조치 시행

<베트남 총리지시령 16호의 주요내용>

- 코로나 관련 베트남 중앙정부의 지침 중 가장 강력한 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원칙적으로 외출 불가이며 필수적인 경우에만 외출 허용)
- 기관, 학교, 병원 외의 장소에서 **2인 초과 집합 금지**
- **서비스업 운영 임시 중단**(생필품 판매 업종은 정상 운영하되 방역수칙 준수)
- 택시, 버스 등 **공공이동수단 운행금지**

- (추가대응) 8.23~9.30까지 호치민시내 모든 경제활동(기관·기업) 전면 중단
 - 필수 기관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을 포함한 외출 일체 금지
 - * 이동이 허용된 기관들 또한 총 인원의 10% 미만으로만 통행 가능
 - 호치민시를 4단계(Red, Orange, Yellow, Green)로 구분하여 위험지역 통제
 -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에서 생필품 별도 보급
- (생산가동중단) 공장내 식사 및 숙박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만 공장 가동 허용
 - 북부지역의 주요 공단은 정상 가동된 반면 중남부 지역에 다수 조업차질발생
- (영업중단) 병원, 은행 등 필수적인 활동만 일부허용하며 대형마트를 포함한 모든 식료품점·전통시장은 임시 영업중단(~9.30), 승객운송용 대중교통 중단 계속
- (이동통제) 호치민시 → 다른 62개 성·시로 이동금지조치 유지
 - * 출국, 병원 방문 등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외출 금지(~9.30)

<봉쇄(락다운)조치 이후 호치민시 전경>



자료 : vnexpress(좌), tuyen giao(우)

3. [’21년 7월 이후] 진출 섬유 의류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 (조업차질) ’21년 7~9월 호치민 인근 남부지역의 강력한 봉쇄 조치 실시에 따라 진출기업 공장가동에 심각한 어려움 발생

- 공장 내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 상당수 진출기업의 조업이 완전 중단되거나 가동률 20% 미만으로 운영

- 베트남 섬유 의류 협회(VITAS)에 따르면 8월4일 기준 베트남 섬유 의류 기업 중 조업을 완전 중단한 기업의 비율은 30~35%임

* 산업 특성상 노동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근로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기업이 많지 않음

<호치민 인근 진출 한국 섬유 의류 기업 애로사항 사례(’21.8월)>

사 례	애 로 사 항
사례1 (동나이성 진출기업)	○ 약 1,200여명으로 공장가동 진행(기존인력 : 33,000명) - 공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숙식 제공 중 ○ 오더 수주 차질, 매출 감소 등 경영환경 상당히 악화
사례2 (빈즈엉성 진출기업)	○ 숙식제공을 통해 공장가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방역관련 비용이 급증(최근 2개월 기준 약 80억동[약4억원] 소요) ○ 장기간 조업중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이탈하고 있고, 대규모 파업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자료 :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 (물류비용증가) 성시간 이동불가, 통관적체 등으로 물류상의 어려움 발생

- 남부 진출기업의 경우, 도시 진입 자체가 불가하여 원부자재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북부 진출기업의 경우 남부로부터 원자재 등을 조달받는 비용이 기존 대비 3~4배 증가

- 베트남 섬유 의류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남부지역의 생산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북부 진출기업들 역시 자재공급 등의 차질 발생

- 항구 등에서 통관업무가 적체되어 적시 물류 공급이 어려움

- 호치민항의 경우 대규모 코로나 확진으로 하역 지연 등 차질발생

- 봉쇄가 풀리더라도 물류이동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추가적으로 3주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

□ (과다한 방역비용) 코로나 검사비용(주1회), 숙식비용 등 방역부담 가중

- 근무 직원 전원에 대해 주1회 이상의 코로나 PCR 검사확인서 요구
 - 제조기업의 경우 PCR 검사비는 기업이 부담토록 강제
 - * PCR 검사비용 : 약 US12~14달러/1인
- 코로나 검사비용 외에도 작업장 가림막, 손소독제, 마스크 등 기타비용과 직원들의 숙식제공을 위한 비용이 상당함
 - 호치민 등 남부지역에서는 “세 가지(생산, 숙박, 식사)를 한곳에서”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됨(3 tại chỗ - sản xuất, cách ly, ăn nghỉ tại chỗ)
 - * 공장노동자의 생산, 숙박, 식사를 공장 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퇴근을 금지

〈공장내에서 숙식하는 베트남 근로자들〉



자료 : VNA(좌), Bao Laodong(우)

□ (매출손실) 생산중단 혹은 조업차질로 주문취소, 납기 미이행 등이 발생

- 생산중단 혹은 조업차질이 세 달째 지속되면서 주문취소, 주문자진반납 등의 사태와 함께 다수 기업에 자금난 발생
 - 매출 차질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운영비도 발생하기 때문에 적자 경영 불가피
 - * 대부분의 기업이 올해 20%~50% 가량의 매출 차질 예상
 - 납기내 공급을 위해 바이어측에서 항공운송을 요구함에 따라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주문을 자진취소하고 있는 상황
 - 美·EU 등 선진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의류·신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생산 중단으로 인한 잠재 매출액 손실 및 기존오더 납기 미이행 등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시즌상품이란 특성으로 피해 가중>

- 베트남 남부지역의 봉쇄로 섬유 의류 진출기업들의 가을·겨울(FW) 상품 납품이 불가해지면서 다음 시즌까지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 뒤늦게 봉쇄가 풀리더라도 가을·겨울 시즌 제품의 납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 및 공급이 불가
 - 한국·미국 등에 있는 의류 바이어들은 생산물량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한편 자사 입고시기를 최대한 늦춰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 중
 - 아웃도어류, 남성의류 분야의 피해가 큼
- 일부 바이어들은 내년 봄·여름(SS)시즌부터 베트남외로 공급선을 다변화한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이후에도 코로나 이전의 물량을 베트남이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전형적인 피해 사례는 원부자재가 이미 베트남공장으로 공급된 상태에서 봉쇄로 생산·납품이 불가해지는 경우로서, 진출기업들은 납품불가에 따른 피해에다가 인건비, 운영비, 원부자재비용 등의 부담을 지게 됨

□ (인력난 가중) 코로나 봉쇄 여파로 급격한 인력이탈

- 봉쇄조치 등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섬유 의류 분야 근로자들이 복귀하지 않고 현지에서 재취업하거나 새 업종을 찾아 이직하는 등의 사례 다수 발생
 - 코로나 확산에 따라 노동집약적 근무 형태에 대한 우려와 저임금 등의 이유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추세 확산
 - 빈즈영성의 경우 평균임금수준(식비, 사회보험비 제외)이 월500만동~1,200만동(약25만원~6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월1,500만동(약75만원)에도 직원구하기가 어려운 실정
 - * 베트남 채용정보업체 나비고스 그룹(Navigos Group)에 따르면 상반기 섬유 의류 분야 채용수요는 전년 대비 50~60% 증가함
- 연 300시간 이내의 노동법상 초과근무한도 규정을 감안할 때 기존직원의 초과근무로 업무를 충당하기도 쉽지 않음

□ (특별입국 중단) 기술자, 전문가 등 긴급출장자 베트남 입국 애로

- 2020년 3월 외국인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후 전문가 등의 입국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전문기술인력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한 긴급출장자 특별단체입국제도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이 조차 거의 중단된 상태
 - 2021년 6월까지 41,000여명이 특별단체입국으로 베트남 입국 성공
 - 최근 4차 코로나 확산이 진행되면서 특별단체입국이 거의 중단되었고 개별 기업 위주의 개별입국 승인으로 대체되긴 하였으나 성간이동금지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남부 진출기업으로 긴급 출장자의 투입이 어려운 상황

□ (경영난 및 철수검토) 중소기업 등인 경우 다수 철수사례 발생 가능

- 베트남 남부 한국 섬유 의류 중소기업의 30% 이상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베트남 내 다수의 공장을 운영 중이므로 위기 대응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가 상당
 - 봉쇄가 10월까지 이어질 경우 다수 기업이 심각하게 철수를 고려 할 것으로 보임
 - * 봉쇄이후 두 달(7월~8월)간 약 10,000명의 한국인이 귀국한 것으로 추산됨
 - * 베트남 정부는 호치민 등 남부지역의 봉쇄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 상태이나 그 이후에는 다소 봉쇄수위를 완화할 것으로 보임

<봉쇄에 따른 베트남 섬유 의류 산업의 피해>

- 봉쇄 장기화에 따라 다수의 베트남 섬유 의류 기업들도 매출감소, 조업중단, 공급망 붕괴에 따른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 2021년 8월 섬유 의류 산업 수출액은 7월대비 18.7%, 전년동월대비 5.9% 감소
 - 업계에서는 당초 올해 수출규모를 390억~395억 달러로 전망하였으나 현재 전망으로는 잘해야 320억~33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임(자료 : 베트남섬유 의류협회)
- (사례) 띠엔장성 소재 Tien Tien Garment 등 7개 섬유 의류 기업(총 고용규모 13,300명)은 장기간에 걸친 생산중단으로 부도 위기에 처함
 - 주문취소, 납기 준수를 위한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 원부자재비용,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경영난 심각
 - 이들은 베트남섬유 의류협회(VITAS) 및 띠엔장성 인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속한 생산 재개허용을 총리실에 건의함

4. 대응조치(정부, 업계, 공공기관)

□ 대사관·총영사관, 코참, 코트라 등 공동대응

-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 구축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코트라 무역관(하노이, 다낭, 호치민), 호치민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이하 중남부 코참),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RCHAM, 이하 북부 코참), 무역협회 등 공공기관과 기업연합체는 물론 베트남섬유의류협회(VITAS)와도 협력하여 베트남 정부 등에 기업애로 해결을 건의 중
 - 전문상담(FTA, 투자진출, 세무, 통관, 철수 등), 애로사항 접수 및 검토 등으로 진행되며 베트남 정부와는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및 코참을 통해 소통

□ (중남부 코참) 호치민 인민위원회를 통한 건의사항 제시 및 토의(8.20)

- 중남부 코참은 8월20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서 개최한 『FDI기업 애로사항 전달 및 해결방안 회의』에 참가하여 애로사항 해결을 촉구

<對호치민 인민위원회 건의사항>

- ① 물류·유통에 대한 투명한 정책 시행
- ② 해외 주요 바이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문 송부요청
- ③ 사업장 재가동 시점 및 조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 ④ 각종 보험료 및 세금에 대해 유예보다는 면제 등의 현실적인 재무지원
- ⑤ 봉쇄 이후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일시적인 노동법 적용 제외

<호치민 인민위원회 회의(8.20) 및 섬유산업연합회의 주한베트남대사 예방(9.9)>



자료 : 코참(좌), 섬유산업연합회(우)

□ (섬유산업연합회) 주한베트남대사 예방 및 건의사항 전달(9.9)

- 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응웬 부 쩡(Nguyen Vu Tung) 주한 베트남대사를 예방하여 건의사항 전달

<섬유산업연합회 건의사항>

- ① 베트남 진출기업들의 현지 근로자들에 대한 조속한 백신접종
- ② 백신접종 받은 근로자들의 **출퇴근 허용**
- ③ 수출입 **통관지연 해소**
- ④ **원활한 인력수급** 등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⑤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베트남 입국시 격리 면제**
※ 현재(9.21기준)는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2주격리(1주 시설, 1주 자가) 의무화
- ⑥ 한국 섬유 의류 진출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
- 시즌 상품이라는 특성상 봉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음을 강조

□ (코참) 『베트남 총리와의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 전달(9.14)

- 코참(북부, 중남부)은 팜 민 쩌 총리 초청 『한국기업과 베트남총리와의 대화』 행사에 참여하여 다수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섬유 의류 기업 관련 사항도 다수 포함됨

<섬유 의류 진출기업 관련 베트남총리에게 전달한 건의사항>

- ① **정부 조치의 사전 고지** : 조치 전 기업들에게 2주 이상의 준비시간 부여
- ② 근로자들에 대한 조속한 **백신 접종**
- ③ 기업 **정상가동 허용** 및 **이동제한 완화**
 - 숙식제공 의무화 폐지 및 1차 백신접종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허용
- ④ **실질적·재정적 기업 지원책 제시**
 - 전기요금 및 법인세 인하, 사회보험 및 노조비 면제 등 재정지원
 - 법인세 등 각종 세금납부 유예, 세무감사 1년 유예
 - 행정업무 조속 처리를 위한 Fast Track 전담 부서 설치
- ⑤ 주12시간, 연300시간 이내인 **현 노동법 초과근무규정의 한시적 적용면제**
- ⑥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베트남 입국시 격리 면제**
※ 현재(9.21기준)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2주격리(1주 시설, 1주 자가) 의무화

<한국기업과 베트남총리와의 대화 행사(9.14)>



자료 : 코참

□ (베트남섬유의류협회) 전기요금 감면, 노동조합기금 납부면제 등 요청

- 베트남섬유의류협회(VITAS)도 산업무역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성시 등에 실질적 지원을 건의함

<VITAS(베트남섬유의류협회) 건의사항>

- ① (산업무역부) '21년 말까지 전기요금 30% 감면
- ② (하이퐁시) '21년 말까지 하이퐁항 항구이용료 면제하고 '22년에는 50% 감면
- ③ (호치민시) '22년 상반기까지 항구이용료 납부 유예
- ④ (지방성시) 피해기업에 대한 토지임대료 50% 감면
- ⑤ (노동보훈사회부) 퇴직기금 및 유족기금 납부 일시중단
- ⑥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기금 2022년 상반기까지 납부 면제

□ 섬유 의류 진출기업 대상 판로확대 및 철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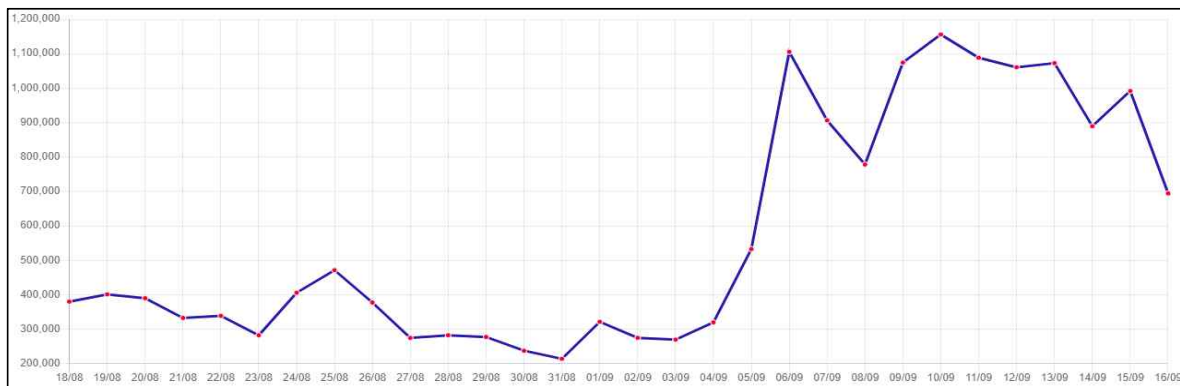
- 코트라 하노이·호치민 FTA지원센터 등을 통해 EU-베트남 FTA와 RCEP 등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상시 지원
- 철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청산절차컨설팅, 국내복귀지원 및 제 3국 이전 절차안내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 추후 예상되는 베트남 섬유의류업계의 구조개편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5. 향후전망

□ With Corona로 전환

- 베트남은 최근 코로나대응의 방식을 그간의 봉쇄위주에서 정상적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With Corona로 전환한다고 발표
 - 봉쇄위주의 대응이 큰 효과가 없는데다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백신접종에 가속이 붙으면서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 베트남 팜 민 쯔 총리는 9월1일 “베트남이 영원히 고립과 폐쇄에 기댄 방역 정책에 갇혀 살 순 없다” 라고 언급
 - 베트남 정부의 With Corona정책은 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은 풍토병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 ② 공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③ 지역별 구분된 방역조치 ④ 경제 재개로 구성됨
- 호치민을 포함한 남부지역은 10월 이후 **단계적 봉쇄 완화**가 예상
 - 하노이시의 경우, 9월16일과 21일 소폭의 방역완화 조치를 단행
 - * 확산 위험지역이 아닌 경우, 식음료 업장의 포장영업(밤 9시까지)을 허용하였으며 사무용품, 도서, 차량 정비소, 가전매장 등의 영업재개도 허용
- 호치민시, 하노이시 등 **중요지역의 백신 1차 접종률은 100%에 육박**
 - 베트남의 백신 1차 접종률은 27%(9.17일 기준, 18세이상 대상)로 추정되며 호치민시 등 확산세가 심했던 지역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투입
 - * 호치민시, 하노이시, 빈즈영성, 룡안성의 백신1차 접종률이 100%에 근접
 - * 9월5일 이후, 일 100만여회의 백신이 접종 중
 - * 베트남은 내년 1분기까지 전체 인구 중 70%에게 예방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

〈베트남의 일일 백신 접종자 추이〉



자료 : 베트남 코로나 백신 포털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상 위치 중장기적으로 회복

- 베트남내 장기간의 봉쇄로 인해 원부자재(중국, 한국 등) → 완제품 생산(베트남) → 소비자 공급(미국, 유럽 등)이라는 의류·섬유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훼손된 상황
 - 완제품의 생산이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으로 긴급하게 이동
- 글로벌 브랜드들은 생산기지 및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음
 - 기존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물량의 일부를 중남미,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등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 발생
 - * 주베트남 독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진출 3,000개사 중 90%이상이 공급망 변화를 모색
 - 따라서 베트남내 봉쇄가 끝나더라도 다시 기존규모의 주문이 베트남으로 바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베트남 공급망 훼손에 글로벌 의류기업도 우려>

- 아디다스와 나이키에 신발을 공급하는 대만계 기업 파우첸(Pou Chen)은 8월 호치민 공장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지역 공장도 생산규모를 축소
 - 봉쇄전 파우첸은 연 1억 켈레 이상의 신발을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수출하였음
- 나이키 연 생산의 6분의 1을 생산하는 대만계 기업 펑타이(Feng Tay)도 조업차질 발생
 - 나이키는 글로벌 생산의 50%를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음
- 아디다스는 공급망 훼손으로 인한 매출손해가 '21년 말까지 5억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밝힘(아디다스의 글로벌 생산 중 베트남이 약 30%를 차지)
- 아디다스는 글로벌 협력사 500여개 중 75개사가 베트남에 소재
- 지난 8월에는 아디다스, 코치, 갭, Hanesbrands, 나이키, VF, 언더아머 등 90여개사의 패션의류브랜드 CEO가 베트남에게 백신공급을 확대하여 공급망 회복을 지원해 달라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함
 - 8.24일 베트남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코로나 백신 100만 도스를 추가 지원키로 약속. 베트남에 지원하는 미국의 코로나백신은 총 600만 도스로 늘어남

- 10월 이후 봉쇄가 단계적 완화되면서 생산, 물류 등이 차츰 정상화될 전망
 - 베트남은 대규모 물량의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지인 만큼 베트남 정부가 산업계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적기에 시행한다면 글로벌공급망내 베트남의 위치를 점차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정부의 기업 지원책 제시 가능성

- 베트남 정부가 피해기업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기업피해를 지원하고자 6가지 각종 비용에 대해 감면·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베트남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정책('21.7)〉

연번	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1	노동재해 및 산업재해 기금 납부감면	노동재해 및 산업재해 기금 가입 근로자에 대한 노동 재해 및 업무상 질병 발생시	해당 근로자에 노동재해 및 산업재해 기금 납부면제
2	퇴직 및 유족 기금 납부유예	코로나19 영향으로 '21.4월 이후 총 직원 숫자가 15%이상 감소한 기업	지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기금 납부 유예 가능 * 휴직자 포함
3	근로자 교육 및 근로 유지 지원금 지원	근로자의 실업보험료를 12개월 이상 전액 납부한 기업	실업보험기금에서 직업 훈련 교육비 지원* * 6개월간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150만동(약7만5000원) 지원
4	휴직비 지원	방역기관 명령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기업 중 2021.5.1~12.31 기간 내 무급휴직자 대상	15일~1개월 미만 무급 휴직자 1인당 185만5,000동, 1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 1인당 371만동 지급
5	급여목적 비용 대출 지원	방역기관 명령에 따라 2021.5.1~2022.3.31 기간 중 휴업해야 하는 기업	휴직 직원 급여 지원 목적 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
6	노동조합 기금 유예	코로나19 영향으로 총 근로 인원의 50%이상인 근무 불가 기업	2021년 12월 31일 까지 노조기금 지불 유예 가능

자료 :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정부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다수 건의가 전달되었고 베트남내 섬유·의류산업의 위상과 한국 진출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섬유·의류산업은 베트남의 주력 수출산업이며 산업내 고용규모는 250만명 이상임

III. 요약 및 시사점

□ 베트남의 주력 수출산업인 섬유 의류 산업

- 베트남의 섬유 의류 산업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섬유 의류 산업 수출의 70% 이상을 FDI 기업이 담당하는 등 FDI 의존율이 높음

□ 베트남 섬유 의류 분야 진출 1위인 한국 기업

- 한국은 전체 베트남 섬유 의류 분야 FDI 투자의 25%를 차지하며 섬유 의류 분야 베트남 제1위 투자국임(전체 진출 기업 수는 약 700개사로 추정)
 - 베트남 역시 한국 섬유 의류 기업의 제1위 투자대상국임
 - 태광실업, 효성, 세아상역, 한솔섬유, 일신방직, 화승, 한세실업 등이 진출

□ 베트남 봉쇄 장기화로 인해 다양한 애로사항 발생

- 4월말 이후 베트남에 코로나19 4차 확산이 시작되고 7월부터는 호치민 등 남부지역에 봉쇄가 시작되면서 심각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발생
 - 조업차질 : 상당수 진출 기업의 조업이 중단되거나 가동률 20% 미만으로 운영
 - 물류차질 : 이동불가로 원부자재 공급이나 협력사간 협업이 어려움
 - 과다한 방역비용 : 코로나19 검사비용, 숙식비용 등의 부담 가중
 - 매출손실 : 주문취소로 인한 매출손실 등 올해 평균 20%~50% 가량의 매출차질 예상
 - 인력난 : 봉쇄조치 등으로 고향에 돌아간 근로자들이 미복귀하는 사례 상당
 - 경영난 : 섬유 의류 진출 기업 중 중소기업의 30% 이상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

□ 대응, 전망 및 과제

- **(대응)** 공관, 공공기관, 코참(중남부, 북부)등이 협업하여 공동대응
 - 현황 모니터링, 애로접수 및 상담, 對베트남정부 건의 및 협의 진행
- **(전망)** 베트남 정부의 With Corona 전환에 따른 단계적 봉쇄 완화
 - 베트남 의류 섬유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 점차 회복
- **(과제)** 베트남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을 지속요구하고 피해기업 지속지원
 -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해 기업 요구·건의사항에 충족하는 지원책을 베트남에 계속 요구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함

참고문헌

1. 베트남 섬유·의류분야 동향 및 전망(코트라해외시장뉴스 2021.3.15)
2. 2021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코트라해외시장뉴스 2021.8.27)
3. 2020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현황 및 전망(한국무역협회 하노이지부, 2020.5)
4. Vietnam Textile and Garment : The impact of Covid19 and Beyond(MCSS, 2020.6)
5. 섬유패션산업통계(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21.5)
6. 베트남투자실무가이드(코트라, 2018)
7. 태광실업 웹사이트(www.tkgroup.co.kr)
8. 코오롱산업 사업보고서 및 웹사이트(www.kolonindustries.com)
9. 한솔섬유 프로파일 및 웹사이트(www.hansoll.com)
10. vnexpress 코로나 통계(vnexpress.net/covid-19/covid-19-viet-nam)
11. 베트남 내 코로나19 4차 유행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6.17)
12. 한세실업 웹사이트(www.hansae.com)
13. 일신방직베트남 웹사이트(www.ilshinvn.com)
14. Top Pick-화승엔터프라이즈(메리츠종금증권, 2021.4.2)
15. 팬코 웹사이트(www.panko.co.kr)
16. 노브랜드 웹사이트(www.nobland.com)
17. 현진스포텍 웹사이트(www.hyun-jin.com)
18. 월간 봉제기술(bobbinjournal.com)
19. 코로나 관련 베트남 정부통계 사이트(<https://covid19.ncsc.gov.vn/graph>)
20. 베트남 코로나 백신 포털(<https://tiemchungcovid19.gov.vn/portal>)

작성자

코트라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박민준 센터장
코트라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조아라 대리
코트라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레 카잉 푸엥

감수자

호치민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이용남 상근부회장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RCHAM)	전장섭 전문위원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이성민 과장

KOTRA자료 21-174

최근 베트남 진출 섬유 의류 기업 현황과 대응

발행인 | 유 정 열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21년 9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의처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84-24-3946-0511)
I S B N | 979-11-6490-984-1 (95320)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